

는 논리적 추론을 통해, 우리 세계에 정말 정확하게 적용되는 선형적 지식을 파악할 수 있다. 내가 알기로, 지금까지 어떤 비판자도 이에 대한 논리적 반대를 하지 못했다. 그들은 미제스가 "우리가 행동에 대한 선형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때, 그저 "그렇지 않다"라고 고집스럽게 대답했을 뿐이다.

많은 철학자들이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명한 윌러드 콰인과 마이클 데빗은 선형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하게 거부한다. 선형의 존재지위에 대한 많은 철학적 논란이 있으며, 앞선 사람들과 반대로 그 존재를 받아들이는 철학자들 역시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을 언급하는 것이 오스트리아학파 비판자들의 오류를 보여주진 않는다. 더욱이 나는 이 자리에서 오스트리아학파 선형이론을 열렬하게 옹호하고 토론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선형적 지식이 자의적인 개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매우 비논리적임을 보여줄 아주 초보적인 근거 몇 가지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형(A priori)에 대한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선형적 지식으로 보이는 몇 가지 진술이 존재한다: "1. 무언가 존재한다. 2. 나는 지금 존재한다. 3. 나는 $2+2=4$ 임을 안다." 경제학의 선형적 성격을 거부한다는 것은, 단지 경제학에서 선형을 박탈하는 것 이상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부류의 지식이 경제학에서 완전히 작동하지 않음을 논증할 필요가 제기된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그러한 논증을 전개한 비판자는 없다.

오스트리아학파가 "교환당사자들이 교환으로부터의 이익을 예상하지 않는 한, 그들은 교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여기에는 어떤 자의적인 개념도 없다. 교환과 이익을 비롯한 이 진술 내의 개념들은 상식적이고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명제에서 오스트리아학파는, 자의적인 개념이나 경험적으로 반증가능한 명제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가치평가에 대한 선형적이고 논리적인 진실, 곧 현실세계의 교환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비판은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이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 오스트리아학파를 논박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철학적 논증이 필요할 것이다.

번역: 김경훈

출처: <https://mises.org/library/human-reason-and-priori-economics>